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20
2020.2.2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Ⅱ)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_ 로마서 4:25

오늘의 주요기사

2-3면	교회소식
4면	교회조직 개편
5-8면	2020년 제직부서 편성
9면	유유청청 소식
10-11면	간증과 기고
12면	공동체 소식

교회일정

2/5(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
2/8(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2/9(주일)	정기당회
2/16(주일)	교육위원회 기도회
2/26(수)	재의 수요일
2/28(금)~29(토)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지난 1월 19일 제직수련회 특강은 새문안교회 담임목사이신 이상학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선물로 주신 은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설교 말미에, 목사님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가 요즘 가치로 6억 원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찾아보니 금 30~40Kg에 해당하는 가치라고도 합니다. 금 한 돈에 20만 원이니 20억 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20억 원을 맡겼다면, 목사님 말씀처럼 참 크게 신뢰받고 있는 셈입니다. 20억 원과 100억 원은 5배의 차이이지만 무척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저는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는 말 때문에 엽전 한 푼 정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같은 성구를 읽으면서도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생각의 힘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생각을 통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습니다.

2020년을 앞두고 함즐함울팀에서는 많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대 사이의 놀라운 차이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입니다. 세대가 다르니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 가치를 공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필연코 관계는 해체됩니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사물, 나와 사회, 더 나아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관계조차도 무너집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기 4:7)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사야 51:1)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1:2)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28)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홀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2:27)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외부에서 주입되는 맥락 없는 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다섯 곳에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모두 근본을 기억하고 가치를 어디 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라는 뜻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지 수천 년이요, 지금의 형태로 정리된 지 천 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수한 언어와 문자 뒤에 켜켜이 가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온갖 사람들의 말과 오해로 오염된 그 성구의 본질적인 의미를 건져 올린 다음, 지금의 사회와 자신에게 낯설이 적용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도 우리는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이나 헌신은 그 깨달음의 실천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함즐함울>에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당부하셨던 “생각하여 보라”를 생각하려 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읽는 일과 쓰는 일”을 통해 생각을 연습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추천하여 함께 읽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능하면 그 좋은 책들의 저자를 모시고 북토크를 열어 직접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책 읽어주는 부모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기획하여 짧은 소설, 시, 수필, 간증 등을 직접 쓰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즐함울

교회 소식 **이와나**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2020년 1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대예배실에서 “온가족이 함께 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주와 동행”(창 6:8~12)를 주제로 열린 이번 새벽기도회에서는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가 매일 진행되어, 가족 모두가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함줄함울

교회 소식 **이와나**

항존직 은퇴식

2019년 12월 29일 주일 3부 예배에서 교인들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받으며 항존직 은퇴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김화수 담임목사는 은퇴하는 안수집사와 권사들을 축하하면서,

직분은 은퇴하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는 사역과 헌신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덕담으로 이분들을 격려했다.

함줄함울

교회 소식 **섬김과 나눔**

어르신들 음악 발표회와 작품 전시회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이 수탁 운영하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병설 마천데이케어센터에서는 지난 12월 20일, 18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그리고 색칠하고 만든 수백 점의 작품이 뽐뿌이 전시된 강당에서 그동안 연습한 여러 곡의 동요와 가곡을 서툴지만 진지하게 열창하고 핸드벨로 연주했다. 연주회의 말미에는 주님의교회 호산나 무용팀이 공연을 하고 어르신들과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발표회를 마쳤다. 강당을 가득 메운 보호자들은, 마치 자녀가 유치원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는 심정으로,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을 관람하고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면서도 눈시울을 붉히는 가슴 뭉클한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발표회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특이한 것이다.

마천데이케어센터는 우리 교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이 2018년부터 송파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송파구립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의 병설기관이며 치매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지역의 노인들을 낮 동안 보살펴 드림으로서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시설이다.

2년 동안 봉사하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섬김과나눔의 미술치료상담팀 팀장 백경애 권사는 2018년 미술활동프로그램으로 처음 봉사하려 갔을 때와 2년이 지난 지금의 분위기를 비교하며 전한다. 처음 시작했을 때, 어르신들은 어둡고 가라앉은 분위기로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그냥 쉬고 있었고, 입소자 수가 점점 줄어 정원을 한참 밑돌고 있었다. 섬김과나눔이 수탁운영한 2년 동안 어르신들은 표정이 현저하게 밝아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등 센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졌다. 마천데이케어센터는 지금은 입소정원을 채우고도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로 지역사회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에서는 2018년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이 그 운영을 수탁한 후부터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의 이름으로 5명의 봉사자가 미술치료상담팀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미술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매주 1회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으며, 여선교회와 이미용팀이 각각 배식봉사와 이미용봉사를 하고 있다.

마천종합복지관과 병설 마천데이케어센터는, 우리 교회(섬김과나눔)가 임명한 김선화 관장(센터장 겸임)과 직원들의 노력,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봉사자들의 헌신,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을 통해 지원된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후원금이 값진 열매를 맺고 있음이 확인되는 뿌듯하고 감동적인 현장이기도 하다. 다양한 재능과 은사로 보람차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현장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후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함줄함울



교회 소식

참된 헌신 위해 다진 새해의 발걸음

2020년 1월 22일 대예배당에서는 2020년도 공동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주제는 '내핍'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주님의교회 연도별 수입은 헌금과 운영수입을 포함, 2004년 37억 4,100만 원에서 2019년 77억 3,800만 원으로 지난 15년간 약 2배 정도 규모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0년 처음으로 70억 원 규모를 기록한 이후, 특별헌금으로 80억 원 대를 기록했던 2013년을 제외하고는 7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재정의 50%을 대외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한 교회 창립 정신의 실천도 쉽지 않았다. 2014년 대내 지출이 58%에 이른 이후, 꾸준한 절감방안을 통해 노력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사역 규모가 확장된 상황의 예산

절감이 용이하지 않아서 답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도표 참조).

이번 당회에서는 대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교회 창립정신의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2019년 많은 논의를 거쳐 진행된 사역부서 통합, 축소 개편은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어 이번 당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첫째 예산을 축소지향적으로 편성하며, 둘째 행사성 사역은 되도록 축소하고, 셋째 식비와 선물비 등 비용성 예산은 기준에 따라 지출하도록 하여 대외 사용비율을 최소한 4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간식비와 식사비 보조비를

대내외 지출 추이(2014~2019)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2
대내지출	58%	58%	56%	56%	55%	53%
대외지출	42%	42%	44%	44%	45%	47%

소정의 축소된 금액(1,000~2,000원)으로 정하여 그 금액 안에서만 지출하도록 했다. 다만 유유청청을 위해 주일학교 어린이 간식비는 기존 700원에서 1,200원으로, 아기정원과 어와나의 간식비는 2,000~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고, 청소년과 청년 간식비(3,000원)는 동결했다.

교사를 포함한 모든 봉사자가 주일에 봉사할 때에는 교회 국수를 이용하도록 하여 별도의 식사비를 책정하지 않았으며, 국수가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김밥과 같은 간편식 가격(3천 원)

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전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연도중 부서 폐쇄로 인한 미사용 잔여예산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예비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도말 미사용 잔여예산을 식비나 간식비 관련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했다.

내핍을 위한 2020년, 자발적인 내핍과 헌신으로 충만했던 창립 초기의 열정을 향한 교회의 이런 노력에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함글함글

사역 간증

초대교회 같은 곤지암 비전교회의 신년 감사 예배

해마다 1월 둘째 주엔 곤지암 비전교회에서 주님의교회 주관으로 신년 감사예배가 드려집니다. 비전교회에서의 신년 감사예배는 여느 예배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설교 시간이 시끌시끌합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어로 동시 통역되는 설교 말씀으로 인해 동시에 여러 개 언어가 들리는 모습이 흡사 초대교회 예배에 들어와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찬양대원은 많지 않지만 최소한 서너 개 나라 출신 찬양대원들이 화음을 맞춰 찬양을 하는 모습이 여간 아름답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주님의교회 주관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교회와 비전교회의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몇분의 기억으로는 2006년에 치과 진료를 했었다고 하니, 아마 2006년이 첫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하면서 곤지암 외국인비전센터의 소장님인 윤대진 목사님이 광고시간에 하는 멘트 중 빠지지 않는 것은 '한 교회의 각 지체가 교단이 다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멘트가 아니면 비전교회와 주님의교회가 같은 교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할 텐데도 해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드문 사례라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국내선교회 산하 주한 외국인 선교회에서는 매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인선교회 산하 의료선교부는 매월 둘째 주 치과 진료 및 내과 진료를, 이미용선교부는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비전센터가 하남에서 곤지암으로 옮길 때에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적은 비용으로 멋진 인테리어를 꾸며주셨고, 축구 선교

회가 있을 때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돕자고 약속하고 도운 것이라기 보다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다보니 15년이란 세월을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국내선교위원회 담당 박주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주한 외국인선교부 장동현 부장님께서 사회를, 박진현 직전 부장님께서 기도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시끌시끌한 예배는 어느 예배보다도 은혜로웠습니다. 예배 후 이미용선교부는 이미용으로 봉사를, 의료선교부는 치과 및 내과 진료를 여느 때와 다른 없

이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베트남 의료선교를 갔을 때, 현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선교가 금지된 곳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마음이 열려 있는 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대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남양주에서 일 끝난 후 3시간을 차를 갈아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용, 어떤 의미에선 내가 저들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와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 보낸 형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박준명 안수집사 / 의료선교부



2020년 개편된 교회 조직

부문	위원회	개편 전	개편 후	개편 전	개편 후	
목양	예배 분과위원회	예배1부	예배부	11부	6부	
		예배2부				
		통역부				
		미술부				
		안내1부	안내부			
		안내2부				
		새벽기도부	기도부			
		중보기도부				
		세례부	세례부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성찬부	성찬부				
	음악 분과위원회	음악지원부	음악지원부	7부	6부	
		호산나찬양대	호산나찬양대			
		시온찬양대	시온찬양대			
		살롬찬양대	살롬찬양대			
		주오 오케스트라				
		임마누엘찬양대	임마누엘찬양대			
	미시오데이찬양대	미시오데이찬양대				
	소그룹 분과위원회	교구행정부	소그룹지원부	4부	2부	
		겨차씨양육부				
		소그룹지원부				
		은사사역부				
	젊은이(8교구) 분과위원회	행정지원부	지원부	3부	2부	
중보지원부						
젊은이사역부		젊은이사역부				
양육 분과위원회	새가족부	새가족부	4부	2부		
	피택자교육부	양육훈련부				
	양육훈련부					
	큐티사역부					
봉사 분과위원회	주방사역부	주방사역부	7부	5부		
	주차안내부	주차안내부				
	봉사부	봉사사역부				
	실만한물가					
	서점부	도서부				
	도서실부					
결혼예식부	결혼예식부					
합계				36부	23부	
교육	어린이 분과위원회 (유아숲)	어린이교육지원부	유아숲교육지원부	10부	7부	
		아기정원	아기정원			
		아기부	아기부(하임)			
		영아1부	영아부(하늘씨앗)			
		영아2부				
		유아1부	유아부(썩트네)			
		유아2부				
		유치1부	유치부(담쟁이)			
		유치2부				
		어와나커비	어와나커비			
	어린이 분과위원회 (유소년숲)		유소년숲교육지원부	8부	6부	
		유년1부	유년부(포도나무)			
		유년2부				
		초등1부	초등부(햇살뜨락)			
		초등2부				
		소년1부	소년부(아름드리)			
		소년2부				
		어와나불티	어와나불티			
		어와나티엔티	어와나티엔티			
		청소년 분과위원회 (청소년숲)	청소년교육지원부			청소년교육지원부
	중등부(팝콘트리)		중등부(팝콘트리)			
	고등부(비전트리)		고등부(비전트리)			
	어와나트랙		어와나트랙			
	청년 분과위원회 (청년숲)	청년사역지원부	청년사역지원부	3부	3부	
		청년1부	청년1부			
	EM 분과위원회	청년2부	청년2부	3부	3부	
		영어예배부	영어예배부			
		어린이영어예배부	어린이영어예배부			
	한국어교실부	한국어교실부	3부	3부		
	합계				28부서	23부서

부문	위원회	개편 전	개편 후	개편 전	개편 후	
선교 구제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국내선교지원부	국내선교지원부	7부	7부	
		군경선교부	군경선교부			
		농어촌선교부	농어촌선교부			
		도시선교부(도시팀)	도시선교부(도시팀)			
		도시선교부(협력교회)	도시선교부(협력교회)			
		다문화선교부	다문화선교부			
		기관선교부	기관선교부			
		통일선교 분과위원회	통일선교지원부			통일선교지원부
	하나원부		하나원부			
	북한이탈주민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대외활동지원부		대외활동지원부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해외선교지원부	해외선교지원부	8부	8부	
		선교기도교육부	선교기도교육부			
		비전트립지원부	비전트립지원부			
		동남아시아부	동남아시아부			
		중앙아시아부	중앙아시아부			
		미주부	미주부			
		유럽 아프리카부	유럽 아프리카부			
		외국인유학생선교부	외국인유학생선교부			
	전문선교 분과위원회	기획운영부	기획운영부	10부	9부	
		성극부	성극부			
		스포츠선교부	스포츠선교부			
		유소년축구선교부	유소년축구선교부			
		호산나무용부	호산나무용부			
		사진부	사진부			
		환경사역부	(폐지)			
		이미용부	이미용부			
		법조선교부	법조선교부			
		의료선교부	의료선교부			
	구제,복지 분과위원회	구제부	구제부	6부	6부	
		복지부	복지부			
		호스피스부	호스피스부			
		전화상담부	전화상담부			
사랑나무부		사랑나무부				
장애인사역부		장애인사역부				
합계				35부	34부	
부설 기관	청소년사역원	청소년사역부	청사원지원부	5부	4부	
		학원선교부	학원선교부			
		반가운학교부	반가운학교부			
		꿈나무부	꿈나무부			
		청소년문화부	(폐지)			
	(사)섬김과나눔	사무국	사무국	9부	5부	
		송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파구립가락 본동 어린이집				
		송파교육복지센터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늘푸른대학부				늘푸른대학부
		무료급식부				무료급식부
		생활지원부				생활지원부
		특별구제부	특별구제부			
		뷰티를 패아링 센터	가정사역부			가정사역부
	가정사역훈련부		가정사역훈련부			
	합계				15부	11부
전문 위원회	미디어관리 위원회	출판홍보부	홍보출판부	3부	2부	
		커뮤니케이션부				
		자료관리실	역사자료관리부			
	상례위원회	상례팀	상례팀	2부	1부	
		하임찬양대				
	재정위원회	재정부	재정부	3부	3부	
		계수1부	계수1부			
	계수2부	계수2부				
합계				8부	6부	
총계	위원회 16	부설기관 3	전문위원회 3	122부서	97 부서	

2020 제직부서 편성

- **공동의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손천숙 장로 • **당회 / 당회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손천숙 장로 **재정** : 이성준 장로 **감사** : 김성구 장로
- **제 직 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홍완식 안수집사

1. 목양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목양	김학원	예 배	배익환 장로	이은석 목사
		음 악	김익훈 장로	이종성 목사
		소그룹	김학원 장로	허 준 목사
		젊은이	김광일 장로	한시영 목사
		양 육	유정식 장로	박주영 목사
		봉 사	강석인 장로	이대혁 목사

1) 예배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부	부장
1	예배부	나관주 안수집사	3	성찬부	유윤실 권사	5	기도부	김애리 권사
2	안내부	임정식 안수집사	4	세례부	이창수 안수집사	6	할렐루야 찬양대	김광희 권사

2) 음악 분과 위원회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오르간/피아노)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오르간/피아노)
1	음악지원부		배태민 안수집사		4	샬롬 찬양대	강진명	김정래 안수집사	김효종 / 정이와
2	호산나찬양대	민태경	장대희 집사	마안나 / 장희진	5	임마누엘 찬양대	이명국	김성수 피택안수집사	김성희 / 이현희
3	시온 찬양대	양재무	황남호 안수집사	박혜선 / 이재유	6	미시오데이 찬양대	성기훈	권승환 안수집사	최세라 / 길혜신

3) 소그룹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소그룹지원부	김은희 피택권사	2	은사사역부	류혜경 피택권사

4) 젊은이(8교구)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지원부	윤성진 안수집사	2	젊은이사역부	김경미 권사

5) 양육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새가족부	고경임 권사	2	양육훈련부	최영인 안수집사

6) 봉사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주방부	상반기:박정은 권사 하반기:이민자 권사	4	도서서점부	전선재 안수집사
2	봉사부	김명훈 안수집사 / 유현숙 지도권사	5	결혼예식부	고명숙 집사
3	주차안내부	태재승 안수집사			

2. 교육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교육	김유호	유아숲	김유호 장로	이은미 전도사
		유소년숲	김은성 장로	손경민 목사
		청소년숲	이현식 장로	임경순 목사
		청년숲	이용수 장로	정구민 목사
		EM	최성준 장로	이진희 목사

1) 어린이 분과위원회 유아숲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유아숲 교육지원부	이은미	김혜중	5	유아부(삿트네)	이은솔	최정윤 / 조정숙 / 강기선 / 이미화
2	아기정원	이은미	강은주 / 전진희	6	유치부(탐쟁이)	이수진	송 희 / 권이홍 / 유희정 / 유혜경
3	아기부(하임)	김오정	윤석춘 / 최은실	7	어와나 커비	김오정	임창남 / 유현숙
4	영아부(하늘씨앗)	서예림	최우철 / 김현진 / 이은우 / 김가남				

2) 어린이 분과위원회
유소년송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유소년송 교육지원부	손경민	손태향	4	소년부(아름드리)	정호영 / 이보라	이승훈 / 이영숙 / 강정여 / 최재준
2	유년부(포도나무)	심다영	박성은 / 김영림 / 김천식 / 이경란	5	어와나 불티	심다영	임창남 / 이춘실
3	초등부(햇살뜨락)	손경민	오치민 / 문현주 / 김순희 / 김경희	6	어와나 티앤티	이보라	임창남 / 천옥현

3) 청소년 분과위원회
청소년송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청소년 교육지원부	임경순	강희정	3	고등부(비전트리)	조영찬 / 정우림	김유석 / 유정아
2	중등부(팝콘트리)	양기훈 / 이요안	김신정 / 전숙정	4	어와나 트렉	백양선	임창남 / 박문숙

4) 청년 분과위원회
청년송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 / 지도권사
1	청년 사역지원부	정구민 / 이충만 / 김세연	박기운 / 민병준	3	청년2부	정구민	정락영 / 최정숙
2	청년1부	김종희	지호선 / 신영숙				

5) EM 분과위원회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 / 지도권사
1	영어예배부	이진희	김윤수	3	한국어교실부	이진희	김경희
2	어린이영어예배부	정지인	이광실				

3. 선교구제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선교구제	동현수 장로	국내선교	황용환 장로	박주영 목사
		통일선교	동현수 장로	이대혁 목사
		해외선교	손영익 장로	윤경수 목사
		전문선교	서준규 장로	이진희 목사
		구제복지	김낙균 장로	황바울 목사

1) 국내선교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국내선교지원부	이성호 집사	5	협력교회선교부	함혜련 권사
2	군경선교부	복향수 안수집사	6	다문화선교부	장동현 집사
3	농어촌선교부	천정희 권사	7	기관선교부	송재승 집사
4	도시교회선교부	황석진 집사			

2) 통일선교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지도권사
1	통일선교지원부	김재민 권사	3	너나들이부	박동구 안수집사 / 신영숙 권사
2	하나원부	강대수 안수집사	4	대외활동지원부	최명철 안수집사

3) 해외선교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해외선교지원부	박석진 안수집사	5	중앙아시아부	안경희 권사
2	선교기도교육부	변춘석 안수집사	6	미주부	김용규 안수집사
3	비전트립지원부	이재홍 안수집사	7	유럽, 아프리카부	김경희 피택권사
4	동남아시아부	이승균 안수집사	8	외국인유학생선교부	김용수 집사

4) 전문선교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기획운영부	이동희 안수집사	6	사진부	임연옥 권사
2	성극부	손경숙 권사	7	이미용부	임미희 집사
3	스포츠선교부	정승아 권사	8	법조선교부	윤승진 집사
4	유소년축구선교부	서철수 집사	9	의료선교부	박준명 안수집사
5	무용부	목기숙 권사			

5) 구제복지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교역자	부장
1	구제부	김중호 안수집사	4	전화상담부		방혜령 집사
2	복지부	김형세 피택안수집사	5	사랑나무부	이채인 교육전도사	탁준한 안수집사
3	호스피스부	김영미 권사	6	장애인사역부	정지혜 전도사	한재희 안수집사

4. 부설기관

1) 청소년사역원

담당 장로 : 심동욱 장로
담당 교역자 : 임경순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청사원지원부	신기숙 권사	3	반가운학교부	이은영 권사
2	학원선교부	장현주 권사	4	꿈나무부	권이홍 권사

2) (사)섬김과나눔

담당 장로 : 조병길 장로
담당 교역자 : 황바울 목사

사역	회장	담당자
법인운영	양동훈	김창안 은퇴장로 / 노봉옥 은퇴장로 / 손천숙 장로 / 김성구 장로 / 박인호 안수집사 / 문완홍 안수집사 / 정익영 안수집사 / 최재경 피택장로 / 황바울 목사 / 자유철 장로 / 조병길 장로 / 김낙균 장로

#	부	부장	#	위탁 기관	부장
1	사무국	안성봉 안수집사	6	송파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연진
2	늘푸른대학부	홍운식 안수집사	7	송파구립가락본동어린이집	송영선
3	무료급식부	황남효 안수집사	8	송파교육복지센터	박은경
4	생활지원부	소봉순 권사	9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5	특별구제부	곽병남 권사			

3) 뷰티풀페어런팅센터

담당 장로 : 김광일 장로
담당 교역자 : 한시영 목사,
이은미 전도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가정사역부	임익수 안수집사	2	가정사역훈련부	김유경 권사

5. 전문위원회

위원회 / 센터	위원장	위원	부서장
기획조정위원회	김화수	손천숙, 동현수, 김학원, 이용수, 이성준, 황용환, 김낙균, 정창화	
대외협력위원회	손천숙	이용수, 황용환, 조병길, 이현식, 임경순	
인사위원회	김화수	손천숙, 최성준, 배익환, 김익훈, 김은성, 정창화	
예산심의위원회	김화수	손천숙, 이성준, 김학원, 이용수, 동현수, 김광일, 김은성	
미디어관리위원회	김유호	배익환, 황용환, 김낙균	홍보출판부 : 장경식 안수집사 역사자료관리부 : 정원영 안수집사
사무국운영위원회	김화수	손천숙, 이용수, 강석인, 김익훈, 김낙균, 이성준	
선거관리위원회	심동욱	서준규, 유정식, 조병길, 손영익, 김은성, 황바울	
치리위원회	김화수	손천숙, 김유호, 심동욱, 황용환, 김광일, 정창화	
장학위원회	최성준	강석인, 서준규, 유정식, 손영익, 이현식	
상례위원회	자유철	신형섭 피택장로, 서정하 피택장로, 최재경 피택장로	상례부장 : 정준호 안수집사
재정위원회	이성준	계수1부 : 최봉수 안수집사 계수2부 : 정만희 안수집사	재정부장 : 김용철 안수집사
감사위원회	김성구	구태호 안수집사, 김영남 권사	

* 상례위원회 하임찬양대 대장 : 김예경 피택권사 / 지휘 : 조정숙 집사 / 반주 : 유혜경 권사

6.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1여전도회	김운선 권사	1남선교회	최재규 안수집사
2여전도회	최정숙 권사	2남선교회	이상선 안수집사
3여전도회	이민숙 집사	3남선교회	신형섭 피택장로
4여전도회	신말희 집사	4남선교회	이재덕 안수집사
5여전도회	고선애 집사	5남선교회	이성호 집사
권사회	조정애 권사	안수집사회	최병욱 안수집사
장로회	손천숙 장로		

7. 담당 교역자

교역자	교구 / 부서	주요 사역(위원회)	기타 사역 및 기관
정창화 목사	선임행정	전문위원회 (기획, 인사, 처리)	사역총괄, 목회행정, 피택자교육, 자치회(장로회)
허 준 목사	3교구	소그룹분과위원회	교적관리, 상례위원회, 자치회(안수집사회)
이은석 목사	1교구	예배분과위원회	성찬/세례 · 입교, 중보기도, 자치회(권사회)
황바울 목사	4교구	구제복지분과위원회	기획, 선거관리위원회, 섬김과나눔(사단법인)
박주영 목사	2교구	국내선교분과위원회 양육분과위원회	새가족, 양육클래스, 자치회(남선교회)
이종성 목사	6교구	음악분과위원회	찬양사역, 자치회(여전도회)
한시영 목사	8교구	젊은이분과위원회	Beautiful Parenting Center, 큐티사역
임경순 목사	청소년	청소년분과위원회	가정과교육연계 / 협력, 청소년사역총괄, 청소년사역원
이은미 전도사	영유아	어린이교육목회원 (유아숲)	가정과교육연계 / 협력, 유아숲 총괄, 아기정원, Beautiful Parenting Center,
이진희 목사	EM	EM분과위원회 전문선교분과위원회	영어예배, 어린이영어예배, 한국어학교
손경민 목사	유소년	어린이교육목회원 (유소년숲)	가정과 교육 연계 / 협력, 유소년숲 총괄, 초등1,2부, 어린이제자훈련
윤경수 목사	7교구	해외선교분과위원회 미디어관리위원회	미디어행정(IT / 방송 / 음향), 홍보출판
이대혁 목사	5교구	통일선교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새벽기도헌신자
정구민 목사	청년	청년분과위원회	청년사역총괄

전임전도사

유 준 전도사	소그룹분과위원회, 양육분과위원회, 찬양, 피택자교육, 새가족	양기훈 전도사	중등부 청소년사역원
이지형 전도사	젊은이분과위원회, Beautiful Parenting Center, 큐티사역	조영찬 전도사	고등부 청소년사역원
이진명 전도사	목양실	서예림 전도사	유아숲 행정, 영아부, Beautiful Parenting Center
김중희 전도사	청년부		

어와나

주님의교회 어와나, 바이블퀴즈



2020년 1월 11일에 왕성교회(서울 신림동 소재)에서 어와나 서울지역 바이블퀴즈대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지역 34개 교회, 경기도 및 인천 지역 6교회 총 695명(불티 305명, 티앤티 390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주님의교회 불티단(7세~9세)은 15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수상했고, 티앤티(10세~13세)는 10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수상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러너와 스카이스토머 최고득점상을 주님의교회 친구가 수상하였습니다.

어와나 방학기간 중에도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공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곧 있으면 개강하는 어와나 활동과 친구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진원 집사 / 어와나

중등부 | 2020 겨울수련회

“너의 의미”



팝콘트리 중등부는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2박 3일간 신앙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0년 겨울수련회는 “너의 의미”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너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시작된 수련회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조별 활동 등 주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

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수련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집회에서는 중등부 양기훈 전도사님의 재미와 감동,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수련회 동안에 팝콘트리 중등부 공동체는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 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음세대인 팝콘트리 중등부 학생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팝콘트리 중등부를 통해 놀라운 다음세대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요안 전도사 / 중등부



고등부 | 2020 겨울수련회

“너는 정말 사랑받고 있어!”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다목적관 5층에서 진행된 비전트리 고등부 겨울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학생 60여 명과 교사 40여 명, 총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스바냐 3장 17절을 본문으로 한 “You are so loved!”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의교회에서 맞

이하의 첫 번째 수련회였는데 2박 3일간 아이들과 더욱 깊이 이야기를 나누며 한 명 한 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명 한 명이 참 귀하고 또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길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그들의 삶에서, 작은 일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우림 전도사 / 고등부

간증 **이아나**

바벨론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나는 회사업무로 1984년 10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다. 생소한 도시이기도 하였지만 성경에서 많이 보고 말씀으로 들었던 나라 특히 구약시대, 그 주변 국가 중의 강대국이기에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 할 수가 있었다.

14시간의 비행 후에 바그다드의 사담공항에 도착하니 한국의 늦은 여름 날씨와 비슷하였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이었기에 공항의 군인들과 출입국 관계자의 분위기가 여느 공항과는 달리 삼엄하고 차별화되어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적막한 사막뿐이지만 다행히도 유프라테스 강변이라서 근처에 야자수 숲이 자리해 한편 안도감이 들었다. 양 무리와 나귀 탄 목동이 간간히 옆을 스치고 지나간다. 사막 한가운데 베이 스캠프를 신축하는 과정을 바라보니 구약시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림처럼 평온하게 느껴질 것 같지만 10여 년 계속되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미사일 폭음과 화염이 가끔씩 우리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다. 이곳 현지인들이 말하는 “에덴동산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합류지점에 있었고 “ADAM TREE”라고 쓰려진 간판 뒤에 선악과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지금도 고사목으로 남아있어 세계 관광객들이 계속해 방문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은 세계 최초 문명의 발상지이며 니므롯이 세워 홍수 이후 노아 자손들이 기거했던 곳이다. 전성기 함무라비왕(BC.1792~BC.1750)은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고 메소포타미아 세계를 통일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 후 느브갓네살 2세(BC.605~ BC.562)는 수천 개의 신전을 만들고 바벨론 중심부에는 고대 바벨탑을 연상케 하는 하늘을 찌르는 높이로 바벨탑을 건립하고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을 면치 못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공중정원도 건설했다고 전한다.

하나님의 교회 태동

이라크 이곳 현장은 바그다드와 수도권, 바벨론 전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화력발전소 4기를 건설하는 이라크 최대의 프로젝트 현장이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세계 도처에서 하루 200~300여 명의 인원이 이곳에 도착하면서 고요했던 사막에 태풍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식당에서 간부직원 몇 명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현장에 모이는 근로자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를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우리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결정하였다. 중동지역은 금요일이 휴일이므로 금요일 저녁 7시에 직원식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주일 예배 안내문을 게시판에 붙이고 나니 다가오는 휴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진다.

첫모임은 12명이 예정된 시간에 모였다. 주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던 중 12분 형제들의 만남은 이내 뜨거운 마음으로 빠르게 가까워 질수가 있었다.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 장소는 여느 현장에서도 그랬듯이 성전 태동 시처음은 식당 교회, 다음은 숙소 교회, 그리고 회의실 교회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의 기도 중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려와 형제님들의 마음에 소원이 합해졌다.

사회주의 무슬림국가이어서 교역자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이라 먼저 교회의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회의를 통해서 휴일 대예배는 한국 교회의 저명하신 목사님 비디오테이프의 설교로, 저녁예배는 직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가기로 했다. 날로 성도들은 증가하였고, 새벽 제단도 쌓게 되면서 그시간은 그 곳에 모인 성도들이 성전건축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합심하여 목마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시절에 이 나라는 무슬림 사회주



의 국가인 까닭에 성직자나 성경책은 공항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선교와 예배가 어려워 큰 문제가 되었다. 고국에서 사랑하는 아내는 구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지원군단인 구역 식구들은 사원아파트의 직원 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협력이 잘 되었다. 뜻을 함께하여 휴가 복귀 직원 편에 해외선교 목적으로 성경책과 설교테이프를 구입하여 보내면서 바그다드 사담공항 통과시 검사의 눈을 가리어 성경책과 설교테이프가 적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구역식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 바벨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휴가복귀 직원들을 통해 예배에 필요한 자원을 받아 볼 수 있었고,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감동과 기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교회건축이 시작되다

숙소 교회의 출석성도가 60여 명이 되었다. 예배는 금요 휴일 오전 11시에 대예배, 오후 7시 저녁예배, 그리고 수요일예배는 저녁 7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회에 걸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같이 하나님께로 뜨겁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의 영향도 있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나라 이라크, 이역만리 타국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떠나 사막 한가운데 구약시대 장막을 연상케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

기에 좋은 여건이 되기도 하였다.

교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 성전건축을하기로 결의하고 건축위원장과 회장에 너무도 부족한 내가 선출되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추진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였다. 성도들의 목표는 설정되었지만 회사에 전무후무한 단독 현장교회를 건축하기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았다. 기자재, 장비, 건축인력 그리고 성전건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출애굽 17장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 닮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아멘으로 믿고 감사의 기도를 전교인이 드렸다. 동분서주 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부지와 교회 설립 승인을 회사에서 받아 낼 수 있었다.

전교인이 성전건축에 온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현장의 각처에서 그치질 않았다.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새벽 기도회에서, 성전건축 예정부지에서도 합심기도는 계속 되고 있었다.

할렐루야! 1986년 4월 15일 밤 7시, 건축부지에서 기공예배를 하면서 전 성도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 전교인이 일과 시간을 마치면 야간에 전원이 건축현장으로 나와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블록을 제작하고 릴레이 운

> 9면에 계속

간증 시편

소원의 촛불

성냥 하나 켜니 따뜻한 난로와 식탁
또 하나 켜니 사랑스런 할머니가
쭉고 배고픔 마음을 채워줍니다.

성탄의 빛나는 만찬 자리가
저 머얼리 빛나고
따스한 할머니의 품이 그리워지는
어두움 속에서

성냥 개비 하나 하나가
행복한 불꽃이 되어 밝혀주듯이
기도 하나 하나에 성령의 불이 붙어
소망에 빛나는 따뜻한 촛불이 되게 하소서.

* 살롱! 오늘 아침 큐티하다가 문득 성냥팔이 소녀가 생각나서 시를 한편 쓰게 되었습니다.
성냥개비같은 나의 기도제목 카드가 불빛으로 바뀌는 것을 가슴에 품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수영 집사 / 5교구 송이 겨자씨

간증 시편

산중 내 벗바리*

한때는 젊음을 앓았다 온몸이 통점이었다 언제나 혼자인 것 같았다
외로움에 담벼락이 조봇조봇 조여들었다 비접하듯 가리산지리산**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계곡에 들면 한없이 고요하고 평안해졌다 산등성이는
제 등을 돌려 목말을 태워준다

이젠 산과 눈썹을 맞추며 산을 탄다 산은 곰살가운 벗바리 같다 마음
쑤쑤이가 궁굴다 가파르게 오르는 가시덤불에 토끼비릿길***이 나타나
기기도 한다 길을 잃고 도 경계를 넘나들다가 문득 금강초롱을 만나기도
한다 금강초롱과의 조우는 우연이 아니다 기적이다

어슴새벽 솟눈발에 꽃처럼 찍힌 산짐승 발자국 해님이 숲속에 피어오르는
비취빛 산이내**** 결결이 마음밭에 삭여진 산중 벗바리들은 눈에
보이는 은혜다 찬양의 노래다

* 벗바리 :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 가리산지리산 : 갈팡질팡
*** 토끼비릿길 : 가파른 벼랑 위에 겨우 있는 길 (비리-벼랑의 사투리)
**** 이내(嵐氣) : 해질 무렵 멀리 일렁이는 푸른 기운

이희숙 권사

> 8면에서
반으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
릴 수 있었다. 우리 프로젝트가 다행
이도 발전소 건물이 있기에 건축분
야 인력이 있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 할 수밖에 없었다.
성전 건물은 올라가고 트러스도 설
치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
다운 성전 내부를 마감할 까?” 건축위
원 집사님들과 논의하고 구상하였
다. 만신을 섬기는 대왕국 바벨론 사
막에 성전의 지붕을 덮은 후에 햇빛
이 가려지게 되니 주일예배부터는
숙소가 아닌 교회 내부 바닥에 천막
을 펴고 예배도 드리고, 내부공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전교인들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열
정과 신앙으로 주간에는 일터에서
야간에는 건축현장에 나와 성령님
이 함께 하시는 찬송 소리와 함께 기
쁜 마음으로 성전건축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성도수가 늘기 시
작하여 150명이 넘었다. 교구와 구역
을 편성하여 리더를 임명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결성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렸다. 강대상도 제작하고 십자
가도 성가대 의자도 제작해 제자리

에 설치하고 보니 감격이 가슴 가득
채워져 왔다.
회사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
으로 불편한 문제도 없지 않았으나
교회 성도님들 각자가 근무하는 직
책에서 헌신적인 근무에 임했기에
회사가 생각을 바꾸기도 했다. 타종
교인의 시각도 날카로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인도
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서서 아
름다운 성전이 무슬림 사회주의 국
가 이라크 바빌론에 우뚝 세워지게
되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
라는 명령에 따라 국문성경을 이라
크 현지 여직원을 통해서 아랍어로
번역하여 선교준비도 시작되었다.
함께 근무하는 각 국가의 민족들, 이
라크인 타일랜드인, 파키스탄인, 필
리핀인, 방글라데쉬인, 인도인에게
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
배를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운데 등록
교인 수가 250명이 되어 각 교구와
구역의 리더들의 사명이 더 커져가
고 함께한 사역의 기쁨과 함께 하나
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봄과
가을에는 체육대회와 야외예배를
개최하는데 유프라테스 강가의 아



름다운 경관의 청포도, 야자수 나무
그늘 아래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의 친목과 교제의 시간으
로 현장 내의 모범이 되는 모임으로
모두가 부러워하였다.
전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와 헌신,
그리고 밤마다 흘리는 땀방울의 결
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
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허락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

교회건축이 완성되다

드디어 1986년 6월13일! 하나님께 감
사함으로 ALMUS교회의 헌당예배를
드리는 날이 왔다.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라크 대사관
님과 직원분, 중동선교회 그리고 한
인교회 연합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
나님께 ALMUS교회 헌당예배를 드

릴 때는 감동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
었다.
구약시대 이 지역의 바벨론 대 왕국
이 수천 개의 신전에서 여러 신을 섬
기며, 천하를 호령, 군림하고 기독교
인을 핍박했던 이 자리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심
에 "여호와 닮았!" "여호와 이레!", 승
리의 하나님,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교회 창립 예배 임마누엘 성
가대의 칸타타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을 찬양하라>서곡을 연습하면서 그
때의 설레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
는다. 그때와 같이 주님이 늘 함께 하
시리라는 믿음으로, 잔잔한 설레임
의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임강식 집사 / 5교구

교회 단신

1월 새가족 환영회



2020년 1월 19일 새가족실에서는 새가족 양육과정을 수료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열렸다. 김화수 담임목사의 축하 말씀과 함께 각 교구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참석하여 새가족을 반갑게 맞았다.

모십니다

아직도,해저무는장터에서 서성이고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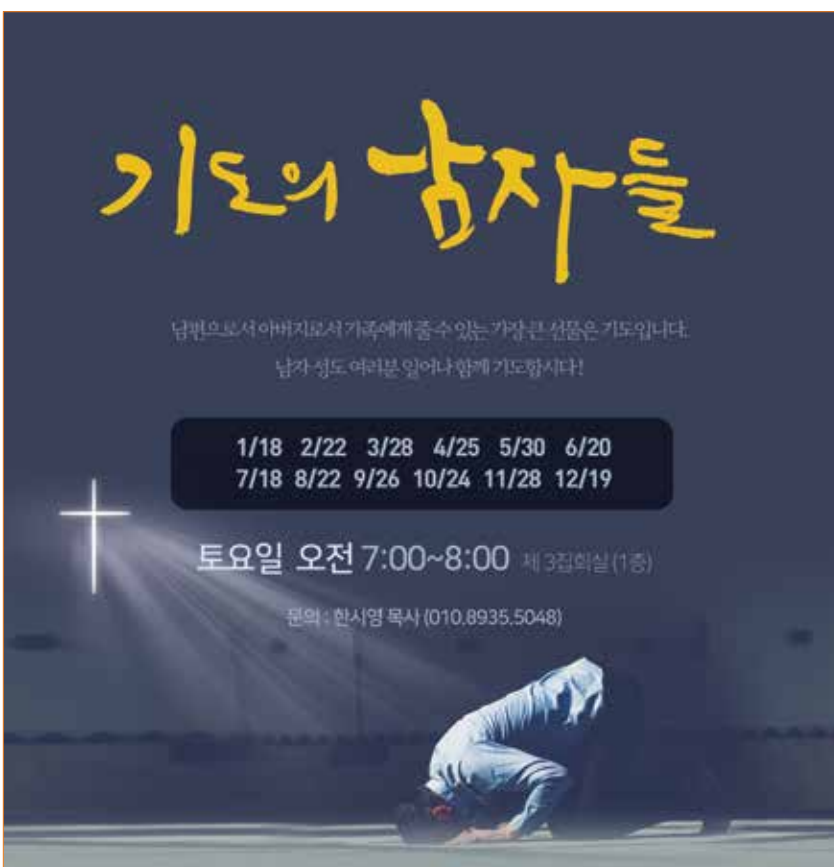
교회에 오셔서 오갈 곳 찾지 못해 서성이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 따라 낮아지고 싶은데, 자꾸만 높아져 고민이십니까?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7대미션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십니까? 그 가난한 심령에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교회 유소년부는 “어린이” 성도님의 연령에 따라 유년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소년부(5,6학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는 주일예배 시간에 따라 1부(오전 9~11시)와 2부(오전 11~1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모든 부서에는 반 담임, 찬양 / 반주, 임원단(총무,서기,회계), 자원팀 등으로 함께하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유소년부 선생님은 단순히 가르치고 섬기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순수함과 깊이를 배웁니다. 아이들과 교제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유소년부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비록 줄기 가늘고 키 작지만 땅 위에 넓게 퍼진 겨자풀처럼, 유소년부의 시원한 그들은 모두에게 넉넉하게 열려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주님의교회 “어른”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손경민 목사(010.2799.5006)



늘푸른대학에 오시면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0 늘푸른대학 제12기 학생모집

- **대 상** : 1951년 이전출생자 / 교인 및 지역주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원** : 270명 (선착순)
- **등록일시** : 2020. 2.11 (화) 10:00~14:00
- **등록장소** : 주님의교회 / 지하1층 중예배실 로비
- **등 록 금** : 8만원(1년)

■ 특별활동 반 ■ (15개 반)

찬양대 반
고사성어 반
노래교실 반
뜨개질 반
라인댄스 반
바둑 반
서예성경필사 반
생활체조 반
스포츠댄스 반
오카리나 반
탁구 반
통기타 반
하모니카 반
문화유산 반
스마트폰 반



개강 : 2020. 3.3(화)

오전 10:30 / 중예배실

주님의교회 / (사)성경과나눔 / 늘푸른대학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5-5113 / 문의 : 홍운식 교무처장 (010-8314-0597)

알립니다

1. 전교인 교적 사진 촬영 주간

일시 : 2/2(주일), 9(주일) 오전 8:30~오후 3:30 로비(1층)
대상 : 사진이 없거나 오래된 모든 교인
내용 : 각 교구 사진첩 확인 후 선택하여 촬영

2. 늘푸른대학 제12기 입학(등록) 안내

대상 : 1951년 이전 출생하신 교인 및 지역주민(주민등록증 지참 필수)
접수 : 2/11(화) 오전 10:00~오후 2:00 중예배실(지하) 로비
등록금 : 8만원(선착순 270명)
개강 : 3/3(화) 오전 10:30 중예배실(지하)
문의 : 홍운식 안수집사(010.8314.0597)

3. 늘푸른대학 남성찬양대원 모집

시간 : 매주 화요일 9:30~14:00
문의 : 배애리 권사(010.8369.8486)

4. 수요 어린이 영어 예배 개학

일시 : 2/5(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20 사랑나눔실(지하)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